

한국판 뉴딜을 통한 지역형 뉴딜정책 추진방향¹⁾

01

김광휘 | 광주광역시 기획조정실장

1. 추진배경

감염병 대유행이라는 유례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는 경기 침체를 동반한 사회 전반의 위기를 맞고 있다. 더욱이 코로나 상황의 장기화로 단순히 코로나 확산을 막는 소극적인 대응에서 벗어나 새로운 사회 구조를 능동적으로 재편해야 하는 숙제를 떠안게 되었다.

이에 정부는 위기 극복과 사회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이중과제를 해결하고자 지난 7월 한국형 뉴딜을 발표하였다. 2025년까지 국비 116조원을 비롯해 총 160조원의 재정을 투입하여 디지털그린 뉴딜로 대표되는 신산업 성장과 사회안전망을 강화함으로써 경기 부양과 함께 경제·사회 전반의 새로운 구조를 여는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다.

한국형 뉴딜의 핵심 투자처는 지역이다. 한국형 뉴딜은 국내 공간적으로는 수도권 중심에서 지역 중심으로 국가발전의 축을 이동시키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단기적으로 지역경제 회복의 발판이 되고, 중장기적으로는 국가균형발전을 한 차원 높여주는 효과를 노리고 있다.

1) 이 안은 광주형 AI-그린뉴딜 비전 보고회(‘20.7.21.), 광주형 AI-그린뉴딜 보고회(‘20.8.19.)에 발표된 자료를 참고로 작성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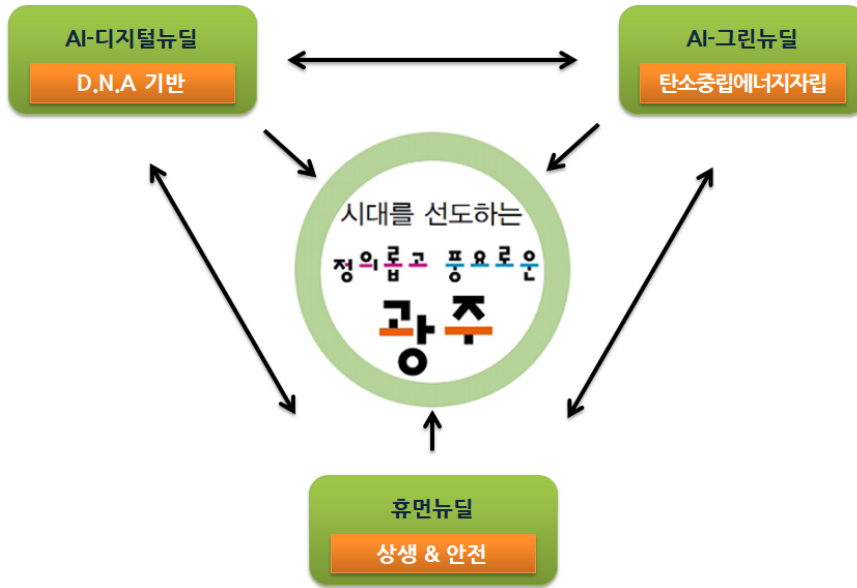
우리 시에서는 이와 같은 정부 기조에 발맞춰 광주형 지역뉴딜로서 한국형 뉴딜을 뒷받침하고, 우리지역의 성장을 이끄는 도약의 발판으로 뉴딜 정책을 활용하고자 한다. 감염병 대유행으로 인한 비대면 방식과 그와 연계한 인공지능 기반의 다양한 수요 폭증은 인공지능 분야를 선점한 우리 시의 기회요인으로 작용한다.

또한 코로나19의 역설과 같이 코로나19로 인해 기후 위기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관심은 부정할 수 없는 세계적 화두로써 우리 시가 꾸준히 준비해왔던 주요의제와도 맞닿아 있다. 탈탄소와 에너지 자립, 기후위기 대응과 녹색산업의 필요성과 가치에 대해 전문가, 시민사회와의 대화를 통해 꾸준히 준비를 해왔다.

지난 1월 우리 시는 인공지능 중심의 새로운 광주 시대를 여는 ‘인공지능 중심도시 광주’ 비전을 선포함으로써 AI산업의 선점 효과와 집중 육성의 의지를 내보였다. 7월에는 전국 최초로 ‘2045 탄소중립 에너지 자립도시’를 비전으로 제시하며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장기적 목표를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또한, 전국 제1호 상생형 지역 일자리로 선정된 노사상생형 광주형 일자리의 기본가치인 상생과 안전이 사회안전망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이와 같이 우리 시에서 꾸준히 준비해왔던 주요 사업들이 뉴딜이라는 기폭제를 맞아 도시 변화와 성장의 길을 마련해 줄 것이다.

2. 추진방향



〈그림 1〉 광주형 뉴딜의 정책방향

우리 시는 지난 7월 21일 광주형 AI-뉴딜 비전과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전국 최초로 2045 탄소중립 에너지 자립도시 선언을 시작으로 한국형 뉴딜의 성공을 견인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글로벌 선도도시 광주를 실현하고자 한다. 3대 축으로 D.N.A 기반의 AI-디지털 뉴딜, 탄소중립 에너지 자립의 AI-그린뉴딜, 상생과 안전의 휴먼뉴딜을 정책방향으로 정하였다. 3대 축은 각 분야의 추진사항 외에도 상호 융합하며 정책적 시너지를 창출하게 될 것이다.

첫째, AI 기반의 디지털 뉴딜이다.

타 지역에 비해 경제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지역의 상황을 돌파하기 위하여 우리 시는 4차 산업 혁명, 그 중에서도 인공지능을 핵심으로 준비해 왔다. 이는 정부의 디지털 뉴딜의 방향 과도 일치한다.

AI 특화 데이터센터 구축 및 주력산업의 고도화를 통해 세계적 수준의 AI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고, 각종 데이터 플랫폼 등을 활용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데이터 허브도시로서 탈바꿈할 것이다. 이를 통해 경제적으로는 국내외 기업 유치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를 회복하고 산업·사회 혁신을 이루어 우리 사회와 경제, 시민의 삶을 바꾸는 디지털 전환 선도도시로 자리매김하게 되는 기반을 제공할 것이다.

참고로 관련 유망기업들도 우리 시의 미래가치를 인정해 8월말 기준 MOU 체결은 31개사, 지역에 사무실을 개소한 기업은 11개사에 이르며 앞으로도 증가할 추세다.

둘째, 2045 탄소중립 에너지자립도시 광주형 AI-그린 뉴딜이다.

기후변화에 따른 위기감으로 EU 등 해외 주요국은 2050년 탄소중립 사회를 목표로 전 분야에서의 저탄소 사회로의 이행을 강화하고 있고, 특히 코로나 19 팬데믹 사태를 계기로 이 인식은 더욱 빠르게 확산되는 추세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기존의 화석연료 형태의 도시나 경제구조로는 경쟁력,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다. 우리 시 산업의 녹색 경쟁력을 키워 녹색전환을 이루어냄으로써, 지역의 주력산업인 자동차, 가전, 에너지, 헬스케어 등도 세계의 녹색시장에서 도태되지 않고 경쟁력을 갖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해 광주형 AI-그린 뉴딜은 지역의 강점인 최첨단 인공지능 기반 위에서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효과적으로 감축하여 도시의 안전과 시민의 건강을 지키고, 녹색산업을 육성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며 사회불평등 해소를 통해 정의롭고 풍요로운 광주를 만들어 내는데 기여할 것이다.

셋째, 상생·안전 휴먼시티를 위한 일자리-휴먼 뉴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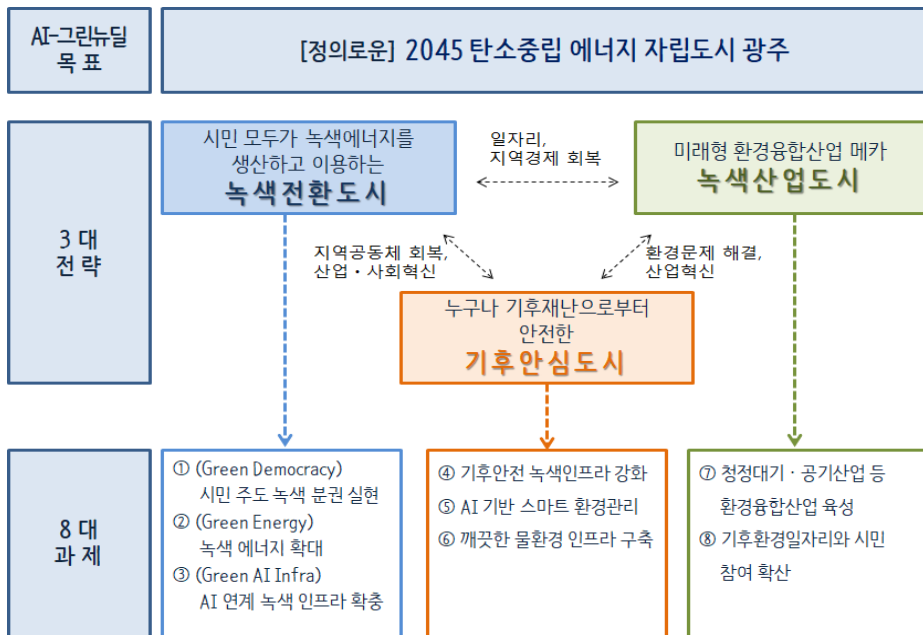
코로나 19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와 단기 고용충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한국형 뉴딜 사업을 지방차원에서 구현하기 위한 지역 여건에 맞는 일자리 창출이 절실하다.

이를 위해 '광주형 일자리'로 대표되는 상생일자리, 디지털·그린 뉴딜 기반을 구축하고 맞춤형 산업 인력 양성을 위한 미래 일자리, 모두가 잘 사는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한 공공일자리 등을 일자리 창출 전략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3. 주요내용 (광주형 AI-그린 뉴딜²⁾을 중심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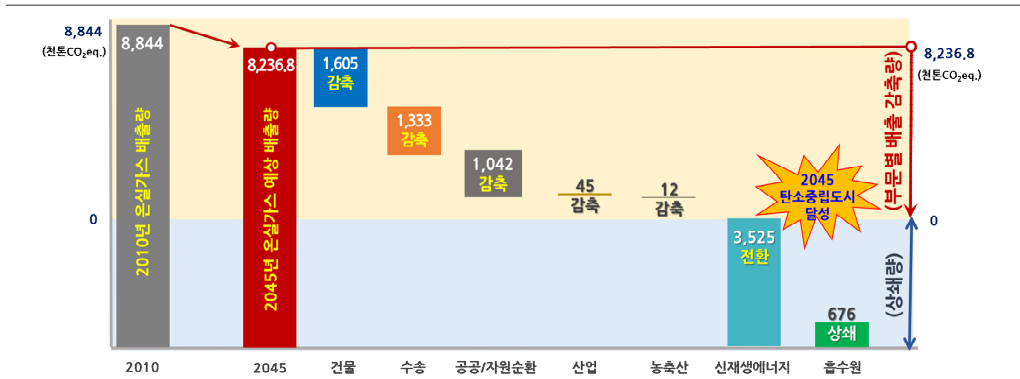
광주형 AI-그린뉴딜의 목표는 2045년까지 정의로운 탄소중립, 에너지자립도시를 실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3대 전략으로 ① 시민 모두가 녹색에너지를 생산하고 이용하는 녹색전환도시 ② 누구나 재난재해로부터 안전한 기후안심도시 ③ 미래형 환경융합산업 메카 녹색산업도시를 만들고, 8대 핵심과제를 정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한다. ※ <그림 2> 참조

광주형 AI-그린뉴딜의 주요개념으로서 ▲에너지 자립도시는 도시 외부의 대규모 집중형 발전소에서 에너지를 공급받는 형태에서 벗어나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신재생에너지를 확대 보급하고 건물용 ESS와 전기수소충전소 등을 구축하여 도시 내에서 에너지를 직접 생산소비-공급하는 형태로 대전환하는 것을 말한다. ▲탄소중립도시는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만큼 이산화탄소를 흡수하여 이산화탄소의 실질적인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이다.



<그림 2> 광주형 AI-그린 뉴딜 구조

2) 「정의로운 2045 탄소중립 에너지 자립도시」 광주형 AI-그린 뉴딜 보고회(20.8.19.)



※ 「에너지자립도시 로드맵」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량은 3,128천톤CO₂eq.으로, 수열에너지 등 미활용에너지 추가 발굴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전환을 포함하면 에너지 전환으로 총 3,525천톤CO₂eq. 감축

〈그림 3〉 2045 온실가스 감축 시나리오

〈그림 3〉은 2045년 탄소중립 온실가스 감축 시나리오이다. 2045년 우리 시 인구는 120만명으로(통계청 전망) 탄소중립을 위해 2045년까지 에너지 전환 352만 5천톤, 건물 160만 5천톤, 수송 133만 3천톤, 공공자원순환 104만 2천톤, 산림-공원 67만 6천톤의 온실가스 감축 또는 상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어 예측량을 토대로 분야별 계획을 수립해 추진해나갈 것이다.

가. 녹색전환도시

시민 모두가 녹색에너지를 생산하고 이용하는 녹색전환도시 실현을 위해 (1단계) 2030년까지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전력을 전량 친환경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2030 기업 RE100'을 달성하여 온실가스를 45% 감축하고, (2단계) 2035년까지 광주가 사용하는 모든 전력을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2035 광주 RE100'달성, (최종단계) 2045년까지 외부로부터 전력에너지를 공급받지 않는 탄소중립 에너지자립도시를 실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민 주도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과 도시 내 그린에너지 생산소비공급체계 확립, AI 연계에너지 클라우드 구축 등의 과제를 추진할 것이다.

나. 기후안심도시

기후변화로 발생하는 폭염, 미세먼지 등 기후위기로부터 가장 안전한 기후안심도시 실현을 위해 기후안전 녹색인프라 강화, AI기반 스마트 환경관리, 깨끗한 물환경 인프라 구축을 핵심과제로 정하였다.

도시 생태축은 기후재난 예방, 도시열섬과 미세먼지 저감 등 도시생태 회복력 강화를 위한 중요한 인프라로 3천만 그루 나무심기를 2027년까지 완료하고,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24개소)을 다양한 공간으로 조성하여 우리시 기후적응 탄력성을 향상시킨다. 그리고 2025년까지 생활폐기물 100% 자원화를 위해 제2하수처리장 에너지 자립화 사업을 추진하고 자원순환과 업사이클 기반 생태계 구축을 위해 생활자원회수센터와 재활용센터를 건립할 것이다.

물순환 선도도시 시범사업, 국내도시 최초 AI 빅데이터 기반 폭염·바람길 예측 시스템 등은 우리 시의 물순환 기능 회복과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들어 줄 것이다.

다. 녹색산업도시

청정대기와 공기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환경융합산업을 육성하고 기후환경 일자리 창출과 시민참여를 확대하고자 한다.

2022년까지 청정대기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산업, 수송, 소각, 발전분야에서 개별기업이 확보하기 힘든 실증 인프라를 제공하고, 연구개발, 사업화, 해외진출 등을 일괄 지원하여 우리 시를 대기산업 중심지로 만들 계획이다.

그리고 2027년까지 청정대기·공기산업을 중심으로 첨단 환경융합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환경기업 300개를 유치하여 2030년까지 광주를 첨단 녹색산업의 메카로 육성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다.

AI-그린 뉴딜 추진을 위해 2045년까지 총 33조 5,045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5년까지는 국비와 시비를 중심으로 총 7조 8,073억원을 투입하고 2025년 이후부터는 펀드를 조성하고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등 다양한 재원 확보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4. 향후계획 및 기대효과

광주형 AI-그린뉴딜을 필두로 디지털 뉴딜, 휴먼뉴딜, 그리고 광주형 종합뉴딜까지 대시민 보고회를 앞두고 있다.

무엇보다 뉴딜의 지향점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여야 하며 국가의 재정지원과 지역 주력산업의 신산업으로의 구조 전환이 필수로 선행되어야 한다. 신산업으로 확장, 정착을 위해 제도적 걸림돌과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 개선해나갈 것이다.

모든 뉴딜의 기술적 토대인 인공지능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인공지능 산업육성 및 데이터 처리 특별법안 제정 건의, 에너지 자립화 비전에 맞게 건축건설 등 일정규모 이상 예산사업을 대상으로 에너지 수요-공급에 대한 철저한 양방향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에너지 영향평가 제도 도입 등 제도 마련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할 것이다.

또한 한국형 뉴딜과 광주형 뉴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우리 시는 추진력과 실행력 담보를 위해 전문가, 유관기관, 시민단체 등이 함께 논의하고 추진해나갈 수 있는 분야별 이행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특히 그린 뉴딜의 경우 시의회 차원에서도 관심을 갖고, 그린뉴딜특별위원회를 구성, 1년간 집중 운영(2020.9.~2021.9.)하여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한 발전이 뉴딜사업이라는 정책적 도구를 통해 시민들의 생활과 삶의 한 지향점으로 제시될 수 있도록 주요계획과 사업을 지속적으로 논의, 보완하고 있다.

뉴딜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다. 하지만 이 수단이 단기효과에만 머무르지 않도록 포스트 코로나라는 시대적 요청과 연계시켜 파급력을 높이고자 한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도시경쟁력의 핵심은 안전과 환경이다. 각종 질병, 재난재해, 사고로부터 안전과 친환경 생태도시가 도시를 찾는 주요 기준이 될 것이다. 그리고 AI 광주의 강점을 살려 복지, 안전, 산업 등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과 표준을 만들어 글로벌 선도도시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